

일본의 고도인재(高度人材) 유치정책

-방일 유학생의 외적요인을 중심으로-

다부치 다카아키*
tabtak1007@yahoo.co.jp

<目次>

- | | |
|------------------------|-------------------|
| 1. 서론 | 3.2 고용단계의 과제 |
| 2.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의 동향 | 4. 요인 비교 분석 |
| 2.1 유학생 유치 동향 | 4.1 변수의 설정 |
| 2.2 유학생의 취직과 고용 | 4.2 중회기분석 결과 및 고찰 |
| 3. 선행연구로 보는 유학생 유치와 고용 | 5. 결론 |
| 3.1 유치단계의 과제 | |

主題語: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고도인재(High Skilled Human), 고용(Employment), 유학생 30만 명 계획(300,000 International Students Plan), 외적유인요소(External incentives)

1. 서론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능적 협력인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하며, 동북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장기경기침체로 인한 노동력 확보와 국제협력 측면에서 유학생 및 기능 훈련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OECD¹⁾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정책적 근거²⁾’에 의하면, 기존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유학비자 만기 시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이해 모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시행중이며, 이전까지의 문화교류 및 국제협력 등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유학비자 만기 이후 일본에서의 취업을 장려하는 ‘고도인재 획득 이민 모델’로

*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본지역연구과 박사과정

1) OECD (2004) *Internationalis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aris, OECD.

2) OECD(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학생 유치 정책의 근거 모델은 ‘국제 협력·이해 모델’ ‘무역·비즈니스 모델’ ‘고도인재 획득·이민 모델’ ‘고등 교육 확대·보완 모델’이 있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인재 유치의 통계³⁾에 의하면, 일본에서 고용된 외국인유학생이 2007년 10,262명이었으나, ‘유학생 30만 명 계획’이 실시된 2008년에 11,040명으로 7.58% 증가했다. 이후 리먼 쇼크, 엔고현상 등으로 감소경향을 보이면서 2010년에는 7,831명으로 되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 내에서 취직하는 비율, 즉 유치단계 대비 고용단계의 비율은 졸업(수료)자 61,186명⁴⁾ 대비 취업자 7,831명의 12.8%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의 ‘고도인재 유치’전략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유학생의 유치단계 및 고용단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층적·다각적으로 30만 명 계획이 달성되지 못한 원인과 달성의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거시적론 방법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유학생 유치 및 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유학생 모국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학생이 입국하는 시점과 유학기간이 끝난 후 일본에서 취직하는 시점을 각각 유치단계와 고용단계로 설정하고, 두 가지 단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적 유인요소를 고려한 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본정부가 외국인유학생을 미래의 고도인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부터 취직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내적 과제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유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국 및 지역의 상황이라는 외적 유인 요소를 도입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2.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의 동향

2.1 유학생 유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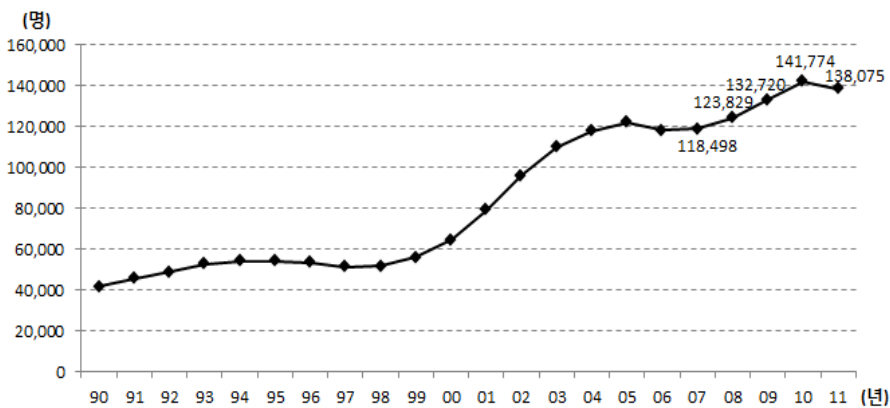
JASSO⁵⁾에 의하면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 이후 유학생의

3) 법무성입국관리국(각 년도) 「留學生等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

4) 일본학생지원기구(2010) 「平成22年度 外国人留學生進路状況・学位授与状況調査結果」

5)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의 영문약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白石勝己(2006)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를 ‘유학생 급증기’라고 부르며, 출입국 관리국의 규제완화정책이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특히 2008년에 30만 명 계획의 시행을 계기로 3년간 매년 약 9,0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1,774명을 기록했다.⁷⁾ 2011년에는 138,075명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기록적인 엔고현상과 동일본대지진(2011.3.11)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유학생의 유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2005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유학생 총수 추이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結果’ 각 년도를 참고로 필자 작성.

2011년도 일본 내 유학생은 중국이 87,533명(전체비율 63.4%)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17,640명(12.8%), 대만 4,571명(3.3%)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출신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 비율에서 낮게 나타났고, 아시아지역 출신 유학생들이 전체 9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30만 명 계획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2 유학생의 취직과 고용

유학생 취직자수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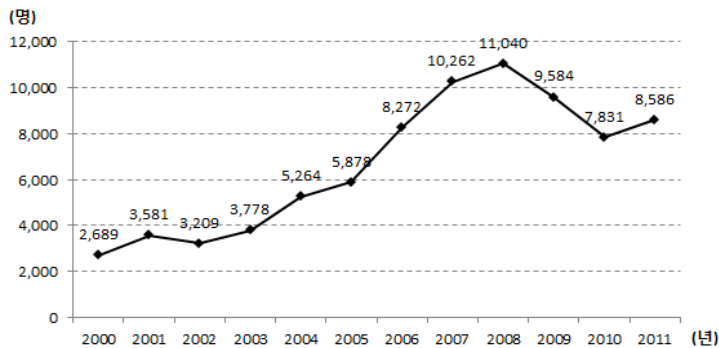
6) 白石勝己(2006) 「留学生数の変遷と入管施策から見る留学生10万人計画」『ABKメールニュース』제61호, p.4

7) 일본학생지원기구(각 년도) 「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結果」

8) 본고에서는 ‘유학’ 및 ‘취학’ 비자로부터 ‘취업’ 비자로 변경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건수를 ‘유학생의

또한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학 및 취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건수가 2000년 2,689건에서 2008년 11,040건으로 8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⁹⁾ 그러나 2010년의 경우, 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은 61,186명인 것에 비해 ‘유학’, ‘취학’ 비자로부터 ‘취업’ 비자¹⁰⁾로 변경한 사람은 7,831명 이었다.¹¹⁾ 즉 졸업 후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이 전체유학생 중 12.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학생(고도인재)의 대다수가 졸업 후 일본을 떠나 귀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신국가 및 지역별로 검토하면 2011년 취업자 수 중 아시아지역 출신자가 8,140명으로 전체 94.8%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한국, 대만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9.8%로 압도적이며, 이는 유학생 비율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에서 중국, 한국, 대만 출신자, 즉 주변 지역에 편중되어 ‘글로벌화’보다는 오히려 ‘블록화’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2) 유학 및 취학 비자로부터 취업 비자로의 변경건수

출처: 법무성입국관리국 ‘留學生等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 각 년도를 참고로 필자 작성.

3. 선행연구로 보는 유학생 유치와 고용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의 과제들을 정리하여 검토한다.

취업자 수’로 파악한다.

- 9) 법무성 입국관리국(각 년도) 「留學生等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
- 10)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전문직·기술적 분야)’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교수’ 등의 노동이 정식적으로 인정된 11종류 재류자격의 총칭이다.
- 11) 일본학생지원기구(2011) 「平成22年度 外国人留學生進路状況・学位授与状況調査結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단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가 내적과제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외적요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1 유치단계의 과제

먼저, 유치단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白石勝己(2006, 2010)는 입국 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본 현상 또는 유학생 유치정책의 과제로서 ①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②흡인력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③중국인 유학생 유치형태와 체류관리, ④경제적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체류목적이 유학에서 노동목적(불법체류 등)으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현안, ⑤유학생의 유치부터 졸업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¹²⁾

韓立友・河合淳子(2012)는 중국 국내에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치단계의 과제를 ①유학방법, ②정보부족과 비효율적인 제공방법, ③장학금, 입학시험 등 제도정비의 필요성, ④유학 중개업자와 학력 날조, ⑤유치 창구 일원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¹³⁾

또한, 寺倉憲一(2009)는 기존 유학생 유치의 목적 및 의의를 여러 국가의 유학생 정책 동향과 그 이념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일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①유치 의의 및 목적의 재검토 필요성, ②유치 의의 및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③정책 평가의 필요성 등을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¹⁴⁾ 이들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입국시의 수속이나 재학 중 학생관리 측면에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2 고용단계의 과제

다음으로 고용단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茂住和世(2010)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30만 명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유학생 기본이념인 ‘인재획득’ 측면에 중점을 둔 개선과제로서 ①유학생의 국내 취직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 ②재류자격 변경 수속의 복잡성, ③일본

12) 위의 논문(각주7). 白石勝己(2010) 「留学生“30万人計画”と“受入れ戦略”『アジアの友』제486호, 아시아학 생문화협회

13) 韓立友・河合淳子(2012) 「日本の大学における留学生受け入れ態勢の問題点及び解決策の探索－京都大学におけるアドミッション支援オフィス導入の背景と効果」『論攷』제2호, 교토대학국제교류센터

14) 寺倉憲一(2009) 「留学生受入れの意義－諸外国の政策の動向と我が国への示唆－」『レファレンス』

의 취직활동 시스템, ④고용 실태에 대한 실적조사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⁵⁾

모리아(2009)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유학생이라는 귀중한 인적자원의 유효활용이 부족하며 정부의 30만 명 계획이 현실과의 괴리를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 취업의 개선과제로 ①교육기관의 취직 전 지도체제가 확립되고 있지 않다는 점, ②일본어 운용능력 및 높은 전문성을 획득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부족, ③정부와 자치단체, 대학, 기업 간을 맺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④일본인과는 별도의 채용방법의 필요성, ⑤일본기업에 있어서 커리어루트(career route)¹⁶⁾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했다.¹⁷⁾

今井靜 외(2006)는 고용단계에 관해서 ①인턴십의 제도화 필요성, ②유학생의 일반생활이나 취직을 지원하는 NPO법인의 부족, ③소속 학부, 학과에 따른 재류자격 및 업무내용의 한정적 부여 등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다.¹⁸⁾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고용단계의 과제들은 유학생 유치와 고용에 대한 일본 내의 제도적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유학생을 사회로 배출하는 기관인 대학, 수용하는 기관으로서의 기업 등이 유학생 취직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과제에는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호스트 측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요인도 유학생 유치단계 및 고용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외적 문제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요인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치단계 및 고용단계의 외적요인, 즉 출신국가와 지역의 상황이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유치단계 및 고용단계에 있어서 외적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5) 茂住和世(2010) 「留学生30万人計画の実現可能性をめぐり一考察」『東京情報大学研究論集』제13권 제2호

16) 직장에 있어서의 인사배치, 인사이동, 승진 등에 해당함.

17) 守屋貴司(2009) 「外国人留学生の就職支援と採用・雇用管理」『立命館経営』제47권 제5호

18) 今井靜・井原聡子・久米由紀子・田窪蒼志春・花折有華・堀江正路(2006) 「外国人留学生の就職支援～新たな国際化に向けて」일본정책학생회의(ISFJ)

4.1 변수의 설정

분석을 위한 모형은 岩淵秀樹(2010)가 활용한 중력모형이라는 분석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¹⁹⁾

$$\ln(Y)=\ln(X_1)+\ln(X_2)+\ln(X_3)+\ln(X_4)+\ln(X_5)+u \quad (\text{단 } u \text{는 오차항})$$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10년간의 자료이며, 목적변수에 사용하는 자료는“출입국관리 통계연보(出入国管理統計年報)” 각 년도 및 법무성 입국관리국“유학생 등의 일본기업 취업현황(留学生等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이다. 설명변수에 사용하는 자료는 외무성 홈페이지 각국·지역정세 및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이용한다. 분석을 위해 입수 가능한 경제통계 자료를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변수를 선택했다.

‘목적변수’

Y_1 : i국에서 일본에 ‘유학’ 및 ‘취학’비자로 신규로 입국한 자의 수

(N=상위 20개국)

Y_2 : i국출신의 ‘유학’ 및 ‘취학’바자로부터 이른바 ‘취업’비자에 변경한 자의 수

(N=상위 20개국)

‘설명변수’

X_1 : i국과 일본의 수도간 거리(단위: km)

X_2 : i국의 인구(단위: 100만 명)

X_3 : i국의 GDP(단위: 10억 US달러)

X_4 : i국의 소비자물가지수(단위: 지수)

X_5 : i국의 실업률(단위: %)

모든 변수에 대해 자연대수(ln)를 취하였다.

분석방법은 유치단계와 고용단계로 나누어 전개한다. 유치단계에 있어서는,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독일, 미얀마, 몽골, 영국, 스웨덴,

19) 岩淵秀樹(2010) 「貿易理論(重力モデル)を用いた日韓研究交流・留学生交流に関する一考察」『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제11권, 규슈대학한국연구센터

岩淵秀樹(2010)는 무역이론인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설명변수로 도시간의 거리, 인구, GDP를 설정하여 유학생 교류를 분석하고 있다.

호주, 홍콩(영국국적도 포함), 필리핀, 캐나다, 스리랑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용단계에서는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미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홍콩(영국국적도 포함),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Y_1 , Y_2 에 포함되는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 대한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4.2 중회귀분석 결과 및 고찰

<표 1>은 유학생 유치단계의 분석결과이며, <표 2>는 유학생 고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유학생 유치와 고용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1>과 <표 2>이다.

<표 1> 목적변수 Y_1 의 회귀(메모 82)분석 결과

		X_1	X_2	X_3	X_4	X_5	보정 R^2
2001	계수	-1.335**	0.262	0.291**	0.027	-1.156*	0.808
	t값	-5.258	2.120	3.524	1.020	-2.772	
2002	계수	-1.340**	0.257	0.291**	0.021	-0.952*	0.753
	t값	-4.742	1.824	3.105	0.682	-2.399	
2003	계수	-1.261**	0.345*	0.240*	-0.253	-0.960*	0.728
	t값	-4.329	2.253	2.383	-0.868	-2.433	
2004	계수	-1.216**	0.245	0.229*	-0.004	-0.619	0.657
	t값	-3.761	1.507	2.156	-0.107	-1.502	
2005	계수	-1.077**	0.406*	0.179	-0.343	-0.772*	0.720
	t값	-3.874	2.742	1.830	-1.264	-2.245	
2006	계수	-1.121**	0.329*	0.253*	-0.251	-0.795*	0.736
	t값	-4.041	2.225	2.491	-0.991	-2.258	
2007	계수	-1.233**	0.336*	0.300*	-0.322	-0.770*	0.789
	t값	-4.601	2.396	2.691	-1.407	-2.382	
2008	계수	-1.403**	0.313	0.314*	-0.274	-0.789	0.772
	t값	-4.945	2.038	2.389	-1.175	-1.988	
2009	계수	-1.290**	0.216	0.389*	-0.138	-0.743	0.743
	t값	-4.376	1.328	2.891	-0.600	-1.770	
2010	계수	-1.299**	0.297	0.316*	-0.291	-0.387	0.739
	t값	-4.604	1.750	2.169	-1.231	-1.060	
2011	계수	-1.227**	0.337	0.268	-0.142	-0.321	0.672
	t값	-4.007	1.815	1.762	-0.578	-0.969	

유의수준: *=5%, **=1%.

<표 2> 목적변수 Y_2 의 회귀분석 결과

		X_1	X_2	X_3	X_4	X_5	보정 R^2
2001	계수	-1.636**	0.267	0.223*	0.035	-0.853	0.744
	t값	-5.307	1.843	2.245	1.050	-1.685	
2002	계수	-1.368**	0.465**	0.123	-0.229	-1.021*	0.826
	t값	-5.374	3.730	1.298	-0.623	-2.915	
2003	계수	-1.552**	0.433**	0.167	0.013	-0.745*	0.821
	t값	-6.213	3.394	1.923	0.485	-2.257	
2004	계수	-1.806**	0.427**	0.169	-0.169	-0.701	0.830
	t값	-6.981	3.092	1.928	-0.660	-2.048	
2005	계수	-1.872**	0.546**	0.134	-0.387	-0.434	0.751
	t값	-5.791	2.977	1.161	-1.231	-1.522	
2006	계수	-1.852**	0.508*	0.082	-0.004	0.020	0.718
	t값	-5.718	2.863	0.662	-0.118	0.082	
2007	계수	-2.035**	0.459	0.106	-0.097	-0.089	0.638
	t값	-4.947	1.881	0.629	-0.274	-0.267	
2008	계수	-1.850**	0.617*	-0.024	-0.240	-0.057	0.663
	t값	-4.925	2.464	-0.139	-0.739	-0.217	
2009	계수	-1.828**	0.664*	-0.072	-0.257	-0.168	0.673
	t값	-4.871	2.668	-0.396	-0.854	-0.569	
2010	계수	-1.808**	0.498	0.119	-0.153	-0.284	0.642
	t값	-4.815	2.083	0.650	-0.519	-0.945	
2011	계수	-1.792**	0.402	0.145	-0.076	-0.182	0.602
	t값	-4.661	1.619	0.752	-0.259	-0.631	

유의수준: *=5%, **=1%.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났듯이 유학생 유치와 고용에 대한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모델로써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유학생 유치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학생 유치(Y_1)과 거리(X_1)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 2005년(계수: -1.077), 2006년(계수: -1.121)을 제외하고 대체로 -1.200이하의 수치로 추이하고 있으며 강한 부(負)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과 2006년에 미국과 독일 등 유학생이 증가하여 거리변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학 후보지를 고려할 때 거리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X_2) 및 GDP(X_3)와의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인구변수는 평균 0.250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05년의 0.406이었고,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2009년의 0.216이었다. GDP 변수는 인구변수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0.250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0.3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모국의 경제성

장이 유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 변수(X_4)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0.250 을 기록했다.

실업률(X_5)과의 상관은 전체적으로 강한 부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1.156 을 기록했지만, 2004년에는 -0.619 로 나타나 부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0.75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비유학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유학생으로서 안정적 소득의 가정환경이 유학 동기와 연결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는 2009년 이후에 급격히 약해졌지만, 이는 2008년 말에 일어난 세계적 동시 불경기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2008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지역의 실업률이 일제히 높아졌기 때문에 실업률과의 상관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유학생 고용(Y_2)과 거리는 대체로 강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1.500 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이후 강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약한 값은 2002년의 -1.368 이었으며, 가장 강한 것은 2007년의 -2.035 이었다.

인구와의 상관은 대체로 강한 정(正)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계수 값이 0.267 이었으나, 이후 0.40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0.664 을 기록하여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GDP와의 상관은 2001년 0.223 으로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강한 상관을 보여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상관은 2005년(-0.387)에는 일시적으로 강한 부의 상관을 나타냈지만, 전체적으로 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의 상관은 2002년에 -1.021 로 나타났고, 2004년까지 -0.700 이하의 강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약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유학생 유치 및 고용의 두 가지 단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한 상관으로 나타난 변수는 거리이며, 고용단계의 값은 유치단계와 비교하면 한층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치단계에 약한 상관관계에 있었던 인구는 상관이 강해지고 있고, GDP와의 상관은 보다 약화되고 있다. 실업률에 관해서도 유치단계에 비해 2004년부터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총체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리적 요인에 의해 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고용단계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외적요소를 도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외적요소를 도입한 분석은 시론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치와 고용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유학생의 입국시기부터 취업시기까지의 과정을 유치단계와 고용단계로 나누어서 동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에서 수치적 괴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신규 유학생 수에 비해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하는 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고도인재 유치에 대한 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일본 국내의 내적요인에 대한 지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외적요인에 대한 분석의 부족함을 알 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외적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유학생 유치 및 고용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 분석에는 유학생 유치와 고용을 목적변수로 설정, 설명변수로 거리, 인구, GDP,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을 사용했다. 그 결과 유치 및 고용의 두 가지 단계에 있어 강한 상관을 보여주는 변수가 거리로 나타났으며, 고용단계의 값이 유치단계보다 한층 더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치단계에서 상관이 약했던 인구변수가 고용단계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바꿔 말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리적 요인에 의해 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으로는 유학생 유치와 고용분석에 한계가 있다. 그것은 유학생이 일본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국 및 일본의 경제상황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 개발과 응용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参考文献】

- 今井静・井原聡子・久米由紀子・田窪誉志春・花折有華・堀江正路(2006) 「外国人留學生の就職支援-新たな国際化に向けて」 일본정책학회지(ISFJ)
- 岩淵秀樹(2010) 「貿易理論(重力モデル)を用いた日韓研究交流・留學生交流に関する一考察」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제11 권, 규슈대학한국연구센터
- 白石勝己(2006) 「留學生数の変遷と入管施策から見る留學生10万人計画」 『ABKメールニュース』 제61 호, 아시아학생문화협회

- _____(2010) 「留学生“30万人計画”と“受入れ戦略」『アジアの友』제486호, 아시아학생문화협회
- 寺倉憲一(2009) 「留学生受入れの意義－諸外国の政策の動向と我が国への示唆－」『レファレンス』
- 韓立友・河合淳子(2012) 「日本の大学における留学生受け入れ態勢の問題点及び解決策の探索－京都大学におけるアドミッション支援オフィス導入の背景と効果」『論攷』제2호, 교토대학 국제교류센터
- 茂住和世(2010) 「留学生30万人計画」の実現可能性をめぐる一考察『東京情報大学研究論集』제13권 제2호
- 守屋貴司(2009) 「外国人留學生の就職支援と採用・雇用管理」『立命館経営』제47권 제5호
- 법무성입국관리국(각 년도) 「留学生等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
- 법무대신관방사법법제조사부(각 년도) 「出入国管理統計年報」
- 일본학생지원기구(각 년도) 「外国人留學生在籍狀況調査結果」
- 일본학생지원기구(2010) 「平成22年度 外国人留學生進路狀況・学位授与狀況調査結果」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is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Paris: OECD, 2004.
- 외무성 「各国・地域情勢」
- URL: <http://www.mofa.go.jp/mofaj/area/index.html>(검색일: 2012/10/19)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URL: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1/weodata/index.aspx>(검색일 : 2012/10/19)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要旨>

일본의 고도인재 유치정책**-방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적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외적요인 요소를 도입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이는 외적요인 분석에 있어 시론적(試論的)인 측면이 있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 과정을 통하여 유학생의 유치단계와 고용단계에서 괴리가 현저히 나타나며,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내적요인(국내 제도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 및 고용의 두 가지 단계에 있어 강한 상관관을 보여주는 변수가 거리로 나타났으며, 고용단계의 값이 유치단계보다 한층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단계에는 약한 상관관계에 있었던 인구와는 상관도 강하게 나타나 고용과 유학생 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리적 요인에 의해 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High skilled human resources acceptance policy in Japan**-Analysis of external factors regarding to arrival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Japan-**

Basing on previous research and issues considered in it, this paper investigates stages of 'acceptance' and 'employment' and their contributing elements from point of foreign students in Japan - their arrival to Japan and staying there for employment.

Contents are organized as following. Chapter 1: Grasp of nowadays level of 'acceptance' and 'employment'. Chapter.2: Arrangement and analyze of problems regarding to students 'acceptance' and 'employment' included in previous research. Chapter 3: Quantitative analysis of factors, which influence 'enrollment' and 'employment' of students, based on statistics.

As a result, the gap between 'enrollment' and further 'employment' become clear. In both 'enrollment' and 'employment', the closer the native country is, the stronger will of students to study and stay in Japan. However, if giving priority to students from neighbor countries it will increase current issue- "bloc". Among the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ss of enrollment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except distance is stable economic situation. Nevertheless, economic status has little influence for 'employment' rate. The emerged issue is, would not be proper to perform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from strategic countries basing on a model of "Immigration and acquisition of high skilled human resources".